

〈황주목스계자기〉 형성 과정 연구

신희경*

— <차 례> —

1. 서론
2. <황주목스계자기〉의 스토리: 『笑囊』134화의 서사 변용
3. <황주목스계자기〉의 스토리텔링 방식
 - 1) 상황의 병렬적 배치와 반복
 - 2) 장면 보여주기
 - 3) 사설치례의 활용
 - 4) 끝맺음 표현
4. <황주목스계자기〉의 소설사적 의의
5. 결론

〈국문초록〉

본 논문은 <황주목스계자기〉가 기존 야담을 원텍스트로 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하여 원텍스트의 변용을 중심으로 하는 형성 과정을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둔다.

<황주목스계자기〉는 18세기 중·후반 이후에 찬집된 한문 필사본 야담집 『笑囊』 134화를 원텍스트로 하여 형성된 작품으로 『笑囊』134화 <一方伯..〉의 소재와 서사단락에 대응된다. 그러나 <一方伯..〉에 비해 <황주목스계자기〉는 소설이라는 갈래적 특징으로 인해 인물 설정이나 구조 그리고 주제 등에 차이를 보인다. 이와 같이 <一方伯..〉을 원텍스트로 하여 생성된 <황주목스계자기〉는 야담과는 다른 텔링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방각본 소설로서의 면모를 지니게 된다.

<황주목스계자기〉는 사랑과 이별에 대처하는 아들들의 상황이 병렬적으로 배치되면서 동일한 상황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스토리텔링 방식을 주제를 구현하

* 성신여대

는 데 활용하고 있다.

또한, <황주목스계자기>는 인물이 처한 상황과 그 장면을 보여주는 스토리텔링 방식을 가지고 있다. 상황의 추이를 편집자의 시각으로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묘사의 방식으로 보여줌으로써 장면이 객관화되고 사실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황주목스계자기>는 유사한 문맥적 기능을 가진 어휘들을 열거하고 함으로써 사설치레를 활용하는 스토리텔링 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사설치레의 기능과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대 정서에 반하는 일탈적인 언어와 권위의 전복에서 오는 골계성은 <황주목스계자기>의 표현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골계를 통해 <황주목스계자기>는 전형적인 양반과 관리들의 이중적 성격에 대한 비소를 유도하고자 한 것이다.

<황주목스계자기>의 이러한 스토리텔링 방식들은 개별적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와 표현, 사설치레와 골계성이 교직되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텔링 방식이 소설이라는 특정한 장르로의 지향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황주목스계자기>에 적용된 스토리텔링 방식은 원텍스트의 서사 구조를 골격으로 하여 대상에 대한 탐색과 주장을 곁들이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산 방식은 <황주목스계자기>의 소비방식을 동시에 표상하고 있는데, 방각본에 요구되는 상품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황주목스계자기>의 형성 과정은 도시의 유흥과 유행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황주목스계자기>는 야담이 가진 서사 구조에 판소리의 구성 방식과 장르 특성을 적용하여 스토리텔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황주목스계자기>에 반영된 이러한 스토리텔링 방식은 19세기 문학의 역동성과 다양성이 단편 소설로 구현되었다는 점에서 소설사적 의미를 가진다.

주제어 황주목스계자기, 스토리텔링, 원텍스트, 사설치레, 판소리, 笑囊, 삼설기.

1. 서론

남녀간의 사랑과 연애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문학 작품의 소재가 되어 왔으며 고전 문학에서도 이를 소재로 하는 작품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작품들은 인간의 원초적 감정을 다룬다는 점에서 보편성을 가지면서도 작품에 따라 인간에 대한 인식을 다르게 보여줌으로써 시대성이나 작가 의식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

이 중에서도 기생과 양반의 관계는 풍류와 향락에 수반되는 성(性)적 호기심과 결합되면서 관심있는 소재가 되어 왔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인간의 본원적 감정을 중시하고 인정세대를 묘사하는 19세기 문풍의 변화는 기생과 성을 소재로 한 여러 형태의 작품을 양산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조선 후기 소설과 야담집에 기생담이나 기생과 관련된 육담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이러한 정황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작품들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되어 왔다.¹⁾

본 논문에서 논의의 대상으로 하는 <황주목스계자기>는 1848년에 방각된 단편 소설집 『三說記』에 수록된 작품으로 수청 기생들과 양반 자제의 교류를 소재로 하고 있다. 그런데 <황주목스계자기>는 동일한 소재를 가진 다른 작품들에 비해 연구자들에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지금까지 <황주목스계자기>의 개별적 연구는 전무하여 주로 『三說記』의 성격 고찰이라는 전제하에 다른 여덟 작품들과 함께 논의되는데 그치고 있다.²⁾

-
- 1) 조광국, 『기녀담 기녀등장 소설 연구』, 월인, 2000.
김준형, 「패설에 그려진 기생」, 『한국학연구』 20, 2004 상반기.
김현룡, 「기녀설화변이 연구」, 『겨레어문학』 33집, 2004. 등이 대표적이다.
 - 2) 鄭愛俐, 「三說記 研究」, 이대 석사논문, 1987.
김동주, 「삼설기에 나타난 삶의 인식」, 이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9.
이경숙, 「삼설기 연구」, 한양대 석사논문, 1986.
이영균, 「삼설기 연구」, 부산대 교육대학원, 1995.

이러한 연구 중에서 전준이와 박일용의 논의는 <황주목스계자기>를 고찰하는 본 논문과 관련하여 매우 의미 있다고 본다. 전준이는 <황주목스계자기>가 판소리의 문체 특징과 서사구조를 원용함으로써 흥미로우면서도 쉬운 서술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향유자들의 취향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박일용은 <황주목스계자기>의 판소리 사설적 문체는 판소리가 가진 풍자적 성격을 함께 노출하고 있다고 하였다. 전준이는 향유자를 상정한 형성 과정을 고찰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박일용은 문체와 작가 의식이 긴밀하게 연결되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본 논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황주목스계자기>의 원텍스트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형성 특징을 고찰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판소리 문체의 특징이 원텍스트의 변용에서 온 것임을 간과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이에 본 논문은 <황주목스계자기>가 기존 야담을 원텍스트로 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하여 개별 작품으로서 <황주목스계자기>를 고찰하고자 한다.³⁾ 또한 <황주목스계자기>가 기생, 양반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연애 혹은 사랑이라는 흥미로운 소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소재는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고 보는데 『三說記』가 개인적 취미로서의 작품집이 아니라 상업적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방

이주영, 「<삼설기>소재 작품의 구성 방식과 지향」, 『古小說研究』 제8집, 韓國古小說學會, 1999.

전준이, 「『삼설기』체제와 유가담론」, 『洋橋語文研究』 14집, 洋橋語文研究會, 2002.

박일용, “『三說記』에 나타난 율문적 문체와 그 의미”, 김병국 외, 『장르교섭과 고전시가』, 월인, 1999.

3) 본 논문은 「황주목스계자기」의 창작 연원을 밝힌 박사학위논문(신희경, 「『三說記』 연구」, 성신여대 박사논문, 2010.) 을 바탕으로 하되 위의 논문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을 첨가하고 확대하면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특히 2장의 「황주목스계자기」의 소설적 성격을 밝히는 내용은 이 논문을 토대로 하였음을 밝힌다.

각본 소설집이라는 점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생산과 시장이라는 경제 원리에 의해 지배되는 상품으로서 방각본 소설집 『三說記』는 생산 단계부터 수요자의 흥미와 대중성이 반영되었을 것이고 이는 <황주목스계자기>의 서사와 문체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황주목스계자기>가 방각본 소설집에 수록될 수 있을 만큼 대중적인 작품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원텍스트의 변용을 중심으로 하는 형성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호기심을 자극하는 소재에 더해 구성이나 문체 등 원텍스트와는 다른 스토리텔링 방법을 고찰함으로써 <황주목스계자기>가 방각본에 수록될 수 있었던 조건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황주목스계자기>의 소설사적 의의를 밝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황주목스계자기>의 스토리 : 『笑囊』134화의 서사 변용

<황주목스계자기>는 18세기 중·후반 이후에 찬집된 한문 필사본 야담집 『笑囊』134화를 원텍스트⁴⁾로 하여 형성된 작품이다. 『笑囊』134화는 한 방백이 세 아들이 기생과 이별하는 상황을 보고 아들들의 진정을 예감한다는 내용이다. 세 아들의 아버지가 아들들의 우열을 말하는 것, 우열의 기준을 기생을 대하는 태도에 둔 것 그리고 셋째 아들을 다른 아들보다 우위에 둔 것 등 <황주목스계자기>는 『笑囊』134화 <一方伯..>⁵⁾의 소재

4) 소설에 반영된 모티프를 중심으로 하는 근원 설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황주목스계자기」는 몇 가지 근원 설화의 조합이 아닌 하나의 설화를 바탕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텍스트 代 텍스트의 변용을 고려하여 원텍스트라고 하였다.

5) 『笑囊』은 각편에 제목이 없지만 본 논문에서는 시조에서처럼 앞 글자를 제목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와 서사단락에 대응된다.

두 편의 서사 구조를 표로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一方伯.	황주목스계자귀
① 한 방백에게 아들 셋이 있었다.	① 윤수현이라는 남행이 세 아들을 두다.
	② 용필, 봉필, 귀필의 인품 소개.
	③ 윤수현이 황주목사로 부임해 가면서기생과 어울리지 말라고 당부하나 아들들은 황주에 도착하여 기생을 구한다.
② 직책이 바뀌어 떠나게 되다.	④ 아들들의 전횡이 심해지자 부임한지 일 년이 되어 윤공은 아들들에게 서울로 갈 것이니 행장을 수습하라고 하다.
④ 비장들에게 아이들이 기생을 대하는 태도를 몰래 엿보라고 하다.	⑤ 윤공이 전정 기상을 보려고 아들의 방을 엿보는데 용필은 기생이 머리 풀며 울고 한탄하자 기생에겐 송구영신이 당연하다며 내치고 코를 골며 잠이 든다.
⑤ 비장들이 보니 첫째 아들은 기생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울기만 하였다	⑥ 봉필은 옷을 풀어 헤치고 우는 기생에게 허풍스레 거짓말을 하며 잊지 않고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하다
⑥ 둘째 아들은 울고 있는 기생의 뺨을 때리며 진정이 아니라고 한다	⑦ 귀필은 별거벗고 서러워하며 싸우다가 기생이 요조숙녀와 결혼한 귀필이 자신을 잊을 것이라고 하자 둘이 도망가서 살자고 하다
⑦ 셋째 아들은 우는 것은 이익이 없다며 잠자리에 든다.	⑧ 윤공은 부인에게 제 아들의 전정을 판단하며 첫째는 벼슬에 오르겠지만 성품이 괴벽하여 귀양 가서 적소에서 죽을 것이라고 하다.
③ 세 아들들의 우열을 말하다. 첫째는 어리석고 미련하여 늙도록 성공하지 못할 것 둘째는 인품이 강직하여 세속을 좇다가 뜻대로 이루기 어려울 것 셋째가 우리 가문을 크게 할 것이다.	⑨ 둘째는 돈으로 벼슬을 얻고 남에게 뇌물을 받아 재산이나 불릴 것이라고 하다.
	⑩ 셋째는 급제하여 많은 벼슬을 하고 백관을 다스리는 훌륭한 재상이 될 것이라고 하다.
⑧ 아들들의 궁달이 방백이 말한 것처럼 되다.	⑪ 부인이 이유를 묻자 윤공은 본심이 어질고 진정으로 대하기 때문이라고 하다

두 편은 세 아들이 기생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그 아버지가 아들들의 미래를 예언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그러나 <一方伯..>과 <황주목스계자기>는 설화와 소설이라는 갈래적 특징⁶⁾으로 인해 인물 설정이나 구조 그리고 주제 등에 차이를 보인다. <一方伯..>과 <황주목스계자기>의 차이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一方伯..>은 아버지와 세 아들에 대한 설정이 “一方伯 有三子 俱率置營中” 이라고 간략하게 나타나 있지만 <황주목스계자기>는 세 아들과 아버지의 인물 설정이 서사 진행과정에서 구체화된다.

옛적 동춘 니화정의 한 남형이 “스니 성은 윤이오 명은 슈현이니 디” 명한가로 황주목스를 하여 형니를 슈습홀시 슬하의 으들 삼인이 “스되 장즈는 농필이니 나히 이십 세오 슝 되오미 준미다귀하고 문필도 유여하며 이는 일도 만흐며 인품이 우즐부즐하여 슝 심편잔 잘 주고 낭반 즈세하여 괴승하기 짝업서 온갓 일물 남의게 지는 빈 업서 안하무인하고 츠즈의 명은 봉필이니 나히 십팔 세오 시로 장가드러 처가의도 즈로 왕니하며 승학 출입도 하고 벼을 슝피며 약게 구러 친구의게 시비를 듯지 안코 미스를 즈뵈아라 시체의 묘흔 선비오 삼즈의 명은 귀필이니 나히 십륙세오 뒤슴” “하며 슈력” “하고 도령 아히러라 『三說記』, 574쪽.⁷⁾

<황주목스계자기>등장 인물이 이름이 윤수현, 윤용필, 윤봉필, 윤귀필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들의 성격이 나타나는데 이는 이후 각각의 기생들

6) 설화는 사건에 직접 돌입하는 데 비해 소설은 기존 소재에다가 부연, 허구, 삽입 과정을 더해 양적 증대화를 꾀한다. 그리고 설화가 보편적 주제를 다루는 데 비해 소설은 질적 변화로서 특수한 작자의식과 시대적 의미를 담는다. (윤주필, 「고소설과 설화문학의 관련성 연구의 제 문제점」, 『고소설연구』 11집, 13면.)

7) 「황주목스계자기」의 인용문 쪽 표기는 金東旭이 교합 교주한 『三說記』(『韓國古典文學大系 第 13卷 短篇小說選』, 民衆書館, 1976.)를 기준으로 하였다.

과 이별하는 모습과 인과관계가 있다. 이로써 아들들의 행동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격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논리가 가능해진다.

니별이 필경 이슬 줄 넌들 모르며 닌들 몰느스라 이제를 당하여 네 말이 원노의 횡츠는 평안히 호시고 이 압 인편의 친필비즈만 하시면 반기혀 디디 리겜노라 하며 하정의 셉 "하온 말슴 엇지 다 알외리잇가 홀 뿐 이라 노류장화는 인개가절이라 호엿느니 이 요약호고 쾌심헌년 무슴 말 호는다 『三說記』, 584쪽.

첫째 아들이 이별을 슬퍼하며 우는 기생에게 한 말이다. 첫째 아들은 이후 기생을 매몰차게 내치고 평소와 같이 잠이 드는데 “스름 심핀잔 잘 주고 낭반 즈세”하며 “안하무인호”라고 한 그의 성격과 일치하는 양상이다.

서울가서 글 넓어 과거하여 등농문헌 후 이 고을 암행어스 즈원하여 내려와서 너를 은근히 위의를 갖초와 다려 갈 거시니 제발 덕분 의절만 직회여다 고 내 집이 근본 디"로 부지라 -중략- 날 본 다시 보와 쓰고 친필답장 부디 호고 조희 " " 잘 닛거라 너 이즐 네 〇들업다 『三說記』, 586쪽.

“약게 구러 친구의게 시비를 듯지”않는다고 한 둘째 아들이 이별하는 기생을 피면서 하는 말로 앞에 제시된 성격과 부합된다.

이에 더해 <황주목스계자괴>에서는 인물에 대한 평가가 서사진행과 함께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一方伯..>에서는 아들들의 기상을 아버지가 미리 알고 있었다. <一方伯..>의 서사는 아버지가 아들들의 우열을 먼저 말한 후 비장들에게 방을 엿보라고 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황주목스계자괴>에서 윤공은 아들들의 우열을 모르고 있다가 각각의

방을 엮은 후에야 아들들의 전정을 아내에게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황주목스계자괴>에서 윤공이 보여주는 가치의 결정은 서사 진행 과정에서 실현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一方伯..>이라는 무제의 야담이 <황주목스계자괴>로 변형되면서 공간이 가지는 특수한 정황을 환기한다는 특징이 있다. <황주목스계자괴>의 무대가 되는 황주는 텍스트에 제시된 것처럼 “색향”이다. 세 아들을 데리고 황주로 간다는 설정 자체는 기생과 관련있는 서사가 전개 될 것임을 알려주는 주요한 표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평양으로 대표되는 서북 지역의 기생 이야기는 황주 지역에도 통용될 수 있는 소재일 수 있다는 점에서 황주라는 지명은 의미가 있다. 더욱이 서울 사람이 일단 지방관이 되면 관비를 축첩하지 않는 이가 없고 사악하고 사치한 일들이 이들의 종용으로부터 일어난다는 기록⁸⁾은 <황주목스계자괴>의 구체적인 공간 설정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소설은 설화와 달리 인물과 환경이 구체적으로 묘사되며 인물이 놓인 시간적 공간적 환경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확장한다⁹⁾는 점에서 <황주목스계자괴>에서의 인물과 사건의 맥락은 소설로의 변용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황주목스계자괴>는 <一方伯..>에 비해 사건의 전후 관계가 구체적이다. <一方伯..>에서 아버지의 직책인 방백의 임기는 일년으로 <一方伯..>에서 아들들이 일년 후에 기생들과 이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된다. 그러나 <황주목스계자괴>에서의 아버지의 직책인 목사는 방백처럼 임기가 정해지지 않은 직임이다. 그러나 <황주목스계자괴>에서

8) 京中人, 一作外方官, 則無不率畜妓屬, …凡奇邪侈濫, 多從此屬之德憑(『승정원 일기』 1763년9월11일)

9) 박희병, 『한국전기소설의 미학』, 돌베개, 1997. 58~59면 참조

의 목사는 아들들과 기생의 전황이 심해지자 임기를 채우지 않고 돌아가려고 한다.

부친이 연고 업시 만냥티슈를 브리고 올느가려 호오니 남이 아라도 성치 아닌 슝으로 알 거시오 『三說記』, 580~582 쪽.

임기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아버지는 일 년 후에 부러울 것 없는 지위를 버리고 돌아가려하고 아들들은 이러한 아버지의 결정에 성치 않은 사람으로 알 것이라며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아버지와의 약속을 무시하고 기생들과 어울리며 학업에 소홀하는 데 더해 온갖 부정을 저지르는 아들들의 행동에 대한 결과이다. 부정을 저지르는 아들들의 행동에 대한 결과로서 아버지는 임기를 남겨둔 채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결정을 통해 부정에 단호한 관리를 긍정하는 작가 의식을 엿볼 수 있다. 물론 부정한 예비관료들을 비판하면서도 결국 이들은 윤공의 예감처럼 관직에 오름으로써 한계가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부정한 행태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아들들이 기생과 헤어지게 되는 구조적 인과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작가는 자신의 가치 지향을 구조화하기 위해 사건의 전후관계를 이와 같이 설정하여 <一方伯..>보다 풍부한 서사구조를 창조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무엇보다 두 텍스트가 가진 가장 큰 차이는 주제에 있다. 두 텍스트 모두 셋째 아들의 전정을 높이 평가하지만 근거는 전혀 다른데 이러한 차이는 두 텍스트에서 말하고자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먼저 기생과 이별하는 <一方伯..>의 셋째 아들을 보자. <一方伯..>에서 셋째 아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한다.

기생은 역시 엎드려 울고 있는데 막내 아들은 이를 조금 오래 지켜보다가 일어나서 기생의 허리를 안고 목을 맞대고 입을 맞추었다. 위로하며 말하기를 우는 것이 무슨 이익이 있으리오 오늘밤 기쁘게 노는 것만 같지 못하다. 그리고는 초를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¹⁰⁾

울고 있는 기생에게 입을 맞추고는 불을 끄고 잠을 자는 아들을 아버지는 “能大吾門者 其惟季兒乎” 라면서 높이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는 기생에게 연연해하지 않는 사람이 큰일을 한다는 의미¹¹⁾를 가진다.

<一方伯..>의 이러한 평가를 그대로 반영했다면 <황주목스계자괴>에서는 기생을 매몰차게 내치고 평소와 같이 잠이 드는 큰 아들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황주목스계자괴>에서는 아버지가 기생과의 이별이 아쉬워하며 함께 도망가서 살자고 하는 셋째 아들이 크게 될 것이라고 하고 있다. <황주목스계자괴>에서 아버지가 셋째 아들이 크게 될 것이라고 말한 근거를 보자

우지마라 아조 쉬운 일이 잇도다. 이왕 판이 그릇 되어스미 너는 장의 가서 전병 장스 술 장스나 호고 나는 질청의 가서 아전의 셔역이느 호여 고지 식하게 굴며 두 식구는 족홀지니 니 울느 가다가 도망호여 나오리라 『三說記』, 590쪽.

셋째 아들이 기생과 함께 서로 욕하며 울다가 애원하는 기생에게 한 말이다. 자신들의 상황을 눈물로 대처하는 양상은 <一方伯..>에서 첫째 아들과 유사하다. 그러나 <一方伯..>의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높이 인정

10) 妓又掩面而泣 季子熟視良久 起抱妓腰 交頸接口 慰曰 泣何益哉 不如且歡今夕也 仍滅燭就枕 (『笑囊』, 140면.)

11) 김준형, 「조선조 패설문학 연구」, 고대 박사학위논문, 2003. 129~134면 참조.

받지 못한데 비해 <황주목스계자괴>에서 아버지는 “만상이 불여심상이라 제 본심이 어질고 진정으로 흐뭇” 셋째 아들이 정승이 될 것이라고 평가한다. 셋째 아들이 기생에게 진정으로 대했기 때문에 사람답고 사람다운 사람이 백성을 이롭게 할 정승이 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一方伯..>은 기생에 연연해하지 않는 사람이 큰일을 할 것이라고 평가한 반면, <황주목스계자괴>에서는 기생이라도 진정으로 대하는 사람이 큰일을 하게 된다고 본 것이다.

셋째 아들의 진정은 실학자 이옥이 말하는 진정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남녀지정이 갖는 진실성의 가치를 인정하는 이옥의 진정은 당시 시정인들의 진실된 삶과 이에 대한 참다운 이해의 결과이며 인간의 가장 보편적이고 원초적인 욕망을 긍정한 것이다. 이러한 이옥의 진정은 김창협, 이천보 등에 의해 제기되어 조선 후기 비평 담론의 주요 인자가 되는 천기론과 관련이 있다. 셋째 아들은 천기론이 지향하는 ‘조작적이지 않은 자연태’와 ‘규율에 구속받지 않는 자유’의 표상¹²⁾을 실천하는 인물인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를 긍정함으로써 <황주목스계자괴>는 당대에 유행하던 ‘새로운 인간 가치에 대한 긍정’이라는 주제로 변형된다.

또한 <황주목스계자괴>에서는 <一方伯..>에는 나타나지 않은 지방관이 된 관리와 그 자제들의 양태를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또 다른 주제를 내포하고 있다. <황주목스계자괴>의 세 아들은 황주로 가자마자 관속들을 동원하여 “일식 기성 한나식 다리고 자미보”기로 한다. 수령으로서 관비를 간음하는 자는 삭탈관직하도록 법전에 규정¹³⁾되어 있음에도 <황주목스계자괴>에서는 그 아들들까지도 공공연히 관기의 수청을 받는 것

12) 이동환, 「조선 후기 ‘천기론’의 개념 및 미학 이념과 그 문예·사상사적 연관」, 『한국한문학연구』 28집, 2001.

13) 정성희, 조선의 색슈얼리티 -조선의 욕망을 말하다, 가람기획, 1998.

이다. 더욱이 아들들은 기생들과 어울리면서 부정을 일삼는다.

삼인의 방즈헝기 유왕유심헝여 칙 한 장 들쳐보며 붓시 떡 못쳐 기억즈
한 즈 쓰는 일 업시 날마다 풍악과 창기의 침혹헝여 불분주야헝고 아비 자는
스이면 인케를 메여다가 공지를 맞치박아두고 위조 속결헝여 좌슈 통인 군
노 사령 호장 창빚치 다 기싱의 손의셔 나고 세 놈이 만일 안히 드리오면
진봉홀 것 본 집의 가져 갈 것 다 움쳐다가 그년들롤 주고 심지어 난안을
쓰더 곳쳐 고을롤 튀각을 민드니 저 기싱 년들은 거의 부즈가 되고 관가는
거의 망케 되엿는지라『三說記』, 580쪽.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윤공은 아들들의 이러한 부정을 알면서도
이를 방관한다.

그러는 저희들은 한스헝는디 내 구지 말니다가는 귀훈 즈식들이 병나기
쉬오미 출하니 약간 닐너 브려들만 갖지 못헝고 쏘흔 저의 얼굴이 철골이니
현마 소범 상한 음허 화동이 나라 니 얼마 닛다가 올느가리『三說記』, 578쪽.

관리 자체의 부정과 이를 방관하는 관리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황주
목스계자기>는 <一方伯..>에는 없던 부정한 관리 비판이라는 주제가 나
타나는데 이는 패설과 소설이라는 갈래 특성에 기인한다. <一方伯..>이
수록된『笑囊』은 이야기가 지닌 흥미성에 초점을 맞춰 찬집한 패설집¹⁴⁾으
로 양반의 풍류의식이나 향락적 일상에 대한 보편적 가치를 보여주는 것
이다. 이에 비해 <황주목스계자기>는 당대 유행하던 인간성에 대한 새로
운 인식과 부정한 관리에 대한 비판이라는 시대적 의미를 가진 주제를 내
포하고 있다.

14) 김준형, 앞의 논문, 132면.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통해 <황주목스계자기>는 야담을 원텍스트로 하여 정황을 구체화함으로써 양적 증대화를 피하고 특수한 작가의식과 시대적 의미를 담아내었다는 점에서 소설이 될 수 있었다고 본다.

3. <황주목스계자기>의 스토리텔링 방식

소설은 구성 방식으로서 문장 단위의 배치 방식, 서술 시각, 문체 성격 등으로 인해 독자적 특질을 가진다. 동일한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작가가 어떠한 구성 방식을 채택했는가 즉, 어떠한 단어와 문장을 선택하여 어떻게 배치했는가에 따라 작품의 개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황주목스계자기>는 방각본 수록 작품으로서 유행과 대중적 흥미소를 적용하여 스토리텔링하였을 것이라고 본다.

스토리텔링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밖으로 표출하는 기술이며 알리고자 하는 바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행위의 총체이다. 스토리텔링이라는 단어가 디지털세대를 맞이하여 생성된 문화코드이기는 하지만 이미 우리 우리의 고전문학은 그 이전부터 스토리텔링의 작업 속에서 유구한 전통과 생명력을 갖고 있었다.¹⁵⁾ 인쇄 매체 시대에는 문학스토리텔링이 디지털 시대에는 디지털 스토리텔링이 우세해 진 것으로 각각의 장르들은 스토리텔링이라는 공통점을 지니면서도 매체의 특성 때문에 형식상의 차이를 띄게 된다.¹⁶⁾

이렇게 본다면 <황주목스계자기>는 방각본이라는, 당시로서는 새로운 매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를 끌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이윤을

15) 심치열, 「스토리텔링 관점에서 본 고소설의 다양한 표출방식 -<채봉감별곡을 중심으로>-, 고소설학회 84차 동계학술대회 발표문, 2009.2, 10면.

16) 최혜실 외, 『문화산업과 스토리텔링』, 다할미디어, 2007. 9~17면 참조.

얻을 수 있도록 기존의 이야기를 새롭게 이야기하는 기법을 적용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기존 작품과 동일한 서사수조를 가지고 있더라도 사건의 어떤 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가, 어떤 부분을 확장하고 어떠한 문체로 서술하고 있는지 등에서 특징을 보이는 인쇄 매체 시대의 스토리텔링 방법이 적용된 것이라고 본다.

본 장에서는 스토리텔링이 가진 원텍스트의 변형이라는 측면에 주목하여 <황주목스계자기> 형성에 반영된 스토리텔링 방식을 고찰하고자 한다.

1) 상황의 병렬적 배치와 반복

<황주목스계자기>가 사랑과 이별에 대처하는 아들들의 태도를 통해 주제가 구현된다는 점으로 볼 때 아버지가 세 아들의 방을 엿보는 상황은 이 작품의 중심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반복적이고 병렬적으로 나타난다.

세 아들이라는 설정이 말해 주는 것처럼 <황주목스계자기>는 아버지가 엿보는 세 아들들의 행동이 일정한 구성을 통해 연쇄적으로 반복되는데 이는 실제 시간의 진행과는 상관없이 병렬적 구성을 보인다. 이별에 대처하는 아들들의 행위는 사실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동 시간에 각각의 방에서 진행되는 것임에도 이를 순차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一方伯..>의 스토리텔링 방식이 그대로 적용된 것이다. 2장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一方伯..>의 경우에도 사건은 병렬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황주목스계자기>는 이러한 각각의 방의 정황을 병렬적으로 배치하는 스토리텔링 방식을 수용하되 기생, 아들, 아버지의 행위로 서술의 층위를 확대하고 있다. 아들들의 행위만 서술되어 있는 <一方伯..>에

비해 <황주목스계자괴>는 기생의 행동과 언술에 이어 아들들이 가진 기생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는 이별의 마지막 상황이 제시되며 이러한 정황에 대한 아버지의 언술이 나타난다.

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아들 방	둘째 아들 방	셋째 아들 방
기생의 행동과 언술	나는 서방님 보시고 빈허로 목을 질너 죽으려 하니 그런 줄 알고 가옵	우리 둘히 의복을 한 그릇에 너헛다가 이리 난호일 계는 두 몸이 또 난호인단 말시오	그러니 저러니 날만 죽이고 올는가오
이별에 대한 아들들의 태도	화를 내며 기생을 내쫓고 평소처럼 잠이 들	집물로 찌고 음행하는 절차 무궁	도망하여 살자고 다짐
아버지의 언술	저놈이 저티도록 홀 줄를 어이 알니오	발촉하고 희괴흔 놈도 있다	내 스랑호던 막니 자식이 이곳에서 속결 업시 죽게 되였다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 아들의 행위에 뒤이어 아버지의 평가가 나타나는 반복적인 구조를 보인다. 이는 유형적 고정성 혹은 고정적인 틀이라고 하는 세 가지 과정의 반복인 것이다. 그리고 이후 세 번째 상황에 대해 긍정함으로써 이러한 유형의 전형적인 구성 방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구성 방식은 세 아들의 행동을 비교함으로써 아버지가 이들의 전정을 판단하는데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장치가 된다. 이별이라는 동일한 상황을 동일한 구조 속에서 각각 다른 정황을 보여주어 비교가 용이한 구조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는 <一方伯..>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는 대로 비교에서 나아가 강조의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 가지 동일한 정황이 반복되는 경우 세 번째가 가장 어렵거나 가장 소중하거나 가장 강한테¹⁷⁾ <황주목스계자괴>에서 역시 셋째 아들의 행위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

고 있다. 두 텍스트의 주제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복과 비교라는 원텍스트가 가진 장점을 <황주목스계자기>에서 활용함으로써 주제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¹⁸⁾

이처럼 <황주목스계자기>가 가진 반복의 틀은 원텍스트가 가진 장점을 살리면서 작품의 재미를 배가하고 정황에 대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2) 장면 보여주기

일반적으로 고소설은 서술자의 직접 서술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편집자적 주석을 통해 사건의 추이와 진행상을 나타낸다. 이처럼 인물들의 행동이나 언술이 서술자적 요약으로 진행되는 일반적인 방각본 소설에 비해 <황주목스계자기>는 상황을 중심으로 보여주는 서술 방식을 가진다.

<황주목스계자기>는 등장 인물들의 언술이나 행동이 사건 정황에 비해 풍부하게 서술되어 있다. 앞장에서 살펴 본대로 <황주목스계자기>의 사건은 기생과의 만남, 전횡, 이별 그리고 아버지의 평가로 축약할 수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인물의 언술을 장황하게 서술하거나 행동을 자세하게 묘사함으로써 추이를 풍부하게 나타내게 된다.

인물의 언술을 장황하게 서술하는 양상은 아버지가 아들들을 훈계하는 부분에서 잘 나타난다. 이는 “윤공이 길들 출혀 써나기 격일호여스미 세으들롤 불너 안치고 금석갓튼 말로 써 경계”한다는 서술로 충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금석같은 말을 자세하게 서술함으로써 확장된다.

17) 장덕순 외,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1984, 1984. 62면.

18) 세 아들의 행위를 비교하고 셋째 아들이 기생에게 진정으로 대한다는 점을 긍정하는 아버지의 평가는 첫째 아들을 통해 기생을 일회적인 성적 도구로만 파악하는 양반들의 일반적인 관행을, 둘째 아들을 통해 표리부동한 양반을 비판하고 있다.

집의서 글 공부호즈니 번거러운 집이 요란호여 출입하는 스품은 만코 너희들인들 나갈 디 노상 업스며 문각슈웅도 만하고 공부의 히로오미 되느니 내가 이제 턴은을 님스와 만냥티슈를 호여 내려가미 그곳 가서 칩방이라 호고 쓰리쳐 안저스면 밥도 조코 의복도 조코 경치도 조흔디 집스름도 아조 업서 공부의 아니 극진하라 이리 닻호면 장니 너희게 과거 길도 트이고 문임도 어더 흘 거시니 이런 정당호 일 닛느냐.『三說記』, 576쪽

“너희 드러라”로 시작되는 윤공의 훈계는 양반 자체가 글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이어 위의 인용문과 같이 황주에서 공부하는 것이 좋은 기회라는 점을 말한다. 윤공의 훈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내려가서 주의할 것들에 대한 내용까지 서술된다. 이렇게 장황하게 서술하는 것은 <황주목스계자기>의 서술 특징이 사건 전개를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상황을 보여주는 데에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러한 특징은 인물들의 행동을 자세하게 묘사하는 방법으로도 구현되는데 아들들이 기생과 이별하는 방에서 잘 나타난다.

이 썸 윤공이 제자를 니여 보니고 그 전경 기상을 보려호고 농필의 방의 가서 어여보니 『三說記』, 582쪽

<황주목스계자기>는 이처럼 엿보기라는 상황 설정으로 인해 장면을 묘사하는데 그치고 있기 때문에 서술 대상으로부터 먼 거리에서 이에 대한 정보를 진술하게 된다. 이는 은밀한 상황을 엿본다는 <一方伯..>의 스토리텔링 방식을 수용한 것이다. <一方伯..>에서 비장들이 엿본 아들 방의 정황이 아들들을 평가하는 증거로 나타나는 것처럼 <황주목스계자기>에서 엿보기는 이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엿보임을 당하는 인물은 본능을 드러내거나 과격적인 행위를 하는 데 <황주목스계

자기>의 남녀관계라는 개인적이면서도 은밀한 정황과 이를 통해 본성을
보려하는 아버지의 의도가 엿보기로 구체화된다.

그년이 삼단갓튼 머리를 귀귀여 압히 낫코 섬 〃 옥슈를 드러 비단치마 우
호로 무릅홀 탕 〃 치며 우리 왈『三說記』, 582쪽

그년이 옷가슴을 헛치고 연적갓튼 쇠용통을 드러니고 더단치마를 버셔
옷목 십니만치 더져두고 섬 〃 옥슈를 드러 각장 〃 판을 두다리며 헛튼 머리
집어 쫓고 기절하여 울거날『三說記』, 584쪽.

이간방의셔 놉년이 벌거벗고 머리를 풀고 어우러져 부등키여 안고 더
골 〃 〃 구글너서 서로 욱히는 말이『三說記』, 586쪽.

‘아들이 기생과의 이별을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다’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인데 각각 아들에 따라 다르게 서술하고 있으며 운다는 일정한 행동
을 “무릅홀 탕 〃 치며” 혹은 “헛튼 머리 집어 쫓고 기절하여” 운다거나 “부
등키여 안고”라는 식으로 다양하게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엿보기를 통해 아들들의 태도와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그놈이 눈을 부릅쓰고 고성 왈 -중략- 노즈를 불너 썩뒤질너 니치라하고
등불 물리라하며 니불를 쓰고 도라누어 코 고는 소리 우뢰 갓터여 잠들거늘
『三說記』, 584쪽.

참지 못하여 어우러져 안고 더골 〃 〃 구을면서 방성디곡하다가 문득 가 〃
더소히니 『三說記』, 585쪽.

네가 내 원슈라 우리 두리 서로 부디이져 유허이 낭즈하여 둘히 다 죽으

면 목석간장이라도 가련히 녀겨 한 굴형의 무더줄 거시니 그리 홀 밧긔 홀 일업다. 『三說記』, 586~588쪽.

기생을 성적 노리개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별을 당해서도 평소와 같이 잠드는 첫째 아들의 모습과 표리부동한 둘째 아들의 성격을 방성대곡하다가 가가대소하는 모습으로 각각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기생과의 이별을 아쉬워하며 함께 죽자는 셋째 아들의 진심은 머리를 서로 부딪는 행동으로 묘사된다.

장면을 보여주는 방법은 이처럼 행동을 자세하게 묘사하는 방법으로 나타난다. 윤희공의 시각이기는 하되 감정이 배제된 객관화된 서술로 이루어져 <황주목스계자괴>의 인물에 대한 서술은 객관적 입장에서 진행된다. 또한 남녀 문제라는 은밀한 정황이 엿보기라는 설정으로 인해 흥미를 배가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원텍스트를 효과적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황주목스계자괴>는 이상의 논의와 같이 인물이 처한 상황과 그 장면을 보여주는 스토리텔링 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면 보여주는 <一方伯..>에서 나타나는 엿보기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작품이 가진 상황을 효과적으로 서술한다는 장점이 있다. <황주목스계자괴>는 상황의 추이를 묘사의 방식으로 보여줌으로써 장면이 객관화되고 사실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3) 사설치레의 활용

사설치레는 길게 늘어놓는 언어표현으로 다양한 현상을 꾸며서 치러내는 양태이다. 이러한 사설치레는 국문학의 다양한 장르 속에서 일상의 경험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치레 대상으로 하여 형상화하여 발현된

다.¹⁹⁾ <황주목스계자기>의 사설치레는 주로 기물이나 유사한 문맥적 기능을 가진 어휘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는 구상적 현시를 통해 장면에서 의도하는 바를 실현하는 사설치레의 일반적인 기능과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다.

먼저 <황주목스계자기>에서 기물을 열거하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다.

함농을 업지르고 그놈의 도포 중치막 동등거리 공주면주 잔누비 긴웃시며 보라면주 쪽 〃 누비 저고리와 가는 면주 비치며 싱면주 한삼이며 통헝전과 너른 속것 단속것과 화장 저고리 김적삼 고장바리 훗단치마를 내여 늦코 『三說記』, 584쪽.

내집이 근본 디 〃 로부터 부지라 네 일용잡물은 외오 셔도니 위주마 경주 인편이느 별편을 어더 보닐 것을 불작시면 온갓 줍물 노리기며 운문디단 니 광단과 왜단 공단일광단과 월광단상 스단모초단이며 남능보라 향나 통견 쌍문초와 빗조흔 슈화주며 진안모시 계추리며 즈지상직 물면주며 고양니이 강진목과 늑진디리 압뒤빈혀 진주투심 석옹황과 면경 석경 이궁전과 밀화장도 삼귀추며 연지분의 브늘 골모 식실이며 역서필목 식간지며 여러 가지 환약 등물롤 다 어더 보닐 거시니 『三說記』, 586쪽.

첫 번째 인용문은 남자와 여자의 다양한 의복을, 두 번째 인용문에는 옷감과 장신구를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황주목스계자기>에서 이러한 기물의 나열은 둘째 아들의 방에서 나타난다. 둘째 아들은 윤공에 의해

19) 박영주, 「판소리 ‘사설치레’연구」, 성대 박사, 1992. 33면. (박영주는 이 논문에서 사설은 한자어 辭說이 아니라 길게 늘어 놓는 말이나 글의 내용을 일컫는 것으로 사설시조나 사설 난봉가에서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적 성격을 엄밀히 구분해야 사설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작품의 문학성이 보다 분명히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만〃 혼 사람 요술하여 지물 후려니여 가산이느 붓”칠 놉이라는 평을 받는 인물이다. 상대의 환심을 사기 위해 물량 공세를 펴는 것은 애정마저 거래의 일부로 보는 둘째 아들의 성격을 나타내는 데 일조하고 있다. 이러한 기물의 나열은 물질적이고 현실적 가치에 집착하는 욕망이 발현된 결과이며 관심의 대상과 욕망의 크기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사설치레의 대상이 기물뿐 아니라 인간의 현실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황주목스계자고>에서 사설은 일정한 상황이나 상태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장안 디더 도상으로 헨거로히 장가갈 제 날갯튼 년 쏘의나 싱각홀가-중략-이성지합 미즐적의 날갯튼 년 싱각홀가 어득한 빈 방 안희 계발 무러 디진 다시 장우단탄 홀을 제 안진서관거오 슈다몽불성이라 약슈삼천니의 청조는 지는가고 서창의 히드도록 소식이 돈절하니 응봉즈접이 각즈도성이라 스몽 비몽간의 도령님 맞나본들 천슈만한 다 못홀여 일장호접 훗터지니춘풍도리 호개야와 추우오동낙엽시의 이니 설움 그 뒤 알니『三說記』, 588쪽.

셋째 아들의 기생의 자탄으로 여기에는 남녀간의 이별 상황에서 상투적이며 공식적인 표현 어휘들이 나타난다. 감정을 표현하는 서정 장르의 독백적 진술과 유사하지만 정서나 감정을 드러내는 데 더해 대상 인물에 대한 사건 예상 경계를 설명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시가 갈래에서 익숙한 표현들이 관습적인 표현구로 사용되어 이별을 슬퍼하는 기생의 정서가 구체화되면서 두 인물간의 애정이 강조되는 것이다. 이는 운공에 의해 셋째 아들이 “이 진짓 사람이라”는 평을 받음으로써 사건의 분위기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위의 사설은 같은 기능을 하면서도 가사삽입에 비해 자율적이고 독립적 속성

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차이가 있다.

이들의 행동을 보고 부인에게 아들들의 전정을 말하는 부분 역시 사설치레 방식으로 장황하게 서술된다.

셋지 늬은-중략-일즉 조흔 급데혀여 가주셔 초입스 흥문박스 실주셔 승
품혀여 한님학스 즉출늬의 성균 전적 잠간혀고 병조좌랑으로 올마니 조정낭
냥스 옥당 슈찬교리 동벽응교 직제학의 규장각 직각 디교 스풀 파스로 동부
승지 당상혀여 의주부윤 당품 부제학 니조참의 디사성으로 동경연 가선혀여
니조참판 년긔혀고 호조판서 승탁혀여 디경연 디제학의 평안감스 다녀와셔
분주혀다 네조판서 니격으로 낭전 판서 승결노 형조판서 물망으로 판의금을
지닌 후-중략-대광보국승록디부 의정부 좌의정의 훈년도제조를 혼 연후-
중략-정승이 되올니『三說記』, 592쪽.

판단에 대한 언술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빅악이 구비혀여 제 몸위 나차 못혀고 남의게 희롭고 평성이 평안치 못홀
늬은 맞늬이오 아모래도 스풀될길 업고 낭반즈식의 괴상이 한나토 업고 간
악이 특심혀여 남 속이기를 잘혀고 제계만 니케홀 늬은 들지 늬이오 괴특홀
스 귀히 될 늬은 셋지 늬이라『三說記』, 590쪽.

그러나 <황주목스계자기>에서는 위의 내용에 이어 20여 가지의 관직
이 열거되는 사설치레가 나타난다. 이와 같은 관직의 열거는 추상적인 어
휘의 나열이 아니라는 점에서 관직에 대한 관심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황주목스계자기>의 사설치레는 일정한 공분모적 성격을 지닌 다양한
어휘들이 허풍과 과시, 이별이라는 구체적 상황 안에서 차례대로 엮여짐

으로써 하나의 언어구조체를 이루고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황주목스계자기>의 사설치레는 각 장면에서의 정서를 확충하고 해소하는 풀이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사설치레의 일반적 성격과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

4) 골계적 언어 표현

골계는 일관되고 보편적인 정서로부터 급격한 변화를 통해 웃음을 유발한다. 이와 같이 정서의 반전을 유도함으로써 쾌감을 느끼는 골계는 공통된 문화 기반이나 논리적 가치 인식에서 일탈된 대상을 문제 삼는다는 점에서 비판 정신과도 상통한다.²⁰⁾

<황주목스계자기>의 등장 인물은 모두 양반이다. 더욱이 “디” 명한가로 황주 목사”가 된 인물이다. 하지만 <황주목스계자기>의 어조는 일반적인 고소설에 나타나는 양반의 어조와는 차이가 있으며 급격한 반전을 통해 권위가 망실되는 설정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처럼 논리적이고 규범적인 가치 인식에서 일탈된 양상을 보여줌으로써 <황주목스계자기>는 양반으로서의 가치규범에서 일탈하는 인물들을 회화화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황주목스계자기>의 언술은 윤공이 아들들을 경계하는 말로 시작된다. 양반의 자식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과 황주에 가서 행해야 할 것들을 훈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따르겠다는 아들들의 언술을 통해 권위적인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20) 최혜진, 『판소리계 소설의 미학』, 역락, 2000. 34~35면 참조.

만일 너희 등이 내려가서 아전 관속을 스펀여가지고 청길히는 여러 두며
아니된 구경이나 다니는 체 흐면 아조 불 곳 업고 또흐 기성 계집을 결년으
는 놀이면 님 슈령이 아라도 내게가지 낫치 썩기이고 관속이라도 좀낭반
의 집으로 알거시니 그런 절통흔 일이 잇느냐 너희들이 "런 물정을 아라
능히 힝홀소나『三說記』, 576쪽

이러한 훈계에 아들들이 "니르시는 말슴을 엇지모로리잇가"라고 긍정
적으로 응대함으로써 윤공의 권위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아들들이 황주에 도착하자마자 태도를 바꿈으로써 전복된다.

부형이 즈식 경계하는 말은 응당 절네판이니 엇지 그 말슴을 다 봉승흐리
오 우리 각" 일식 기성 한나식 다리고 즈미보즈『三說記』, 567쪽.

그리고 이러한 상황의 급작스러운 반전에 대한 윤공의 반응은 다음과
같이 서술된다.

윤공이 "말물 드르미 괴가 막힌디 코구멍 둘물 잘 마련흐지라 어히 업서
아모말도 못흐다가『三說記』, 578쪽.

이처럼 본질적으로 진지한 어조가 기대되는 윤공의 사회적 지위와는
다른 어조로 서술하고 있다. 이는 기대상황에서 일탈되는 상황과 함께 사
회적 기대치와는 다른 어조가 결합되면서 회화화 된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황주목스계자괴>의 일반적인 어조는 구어체의 일상어를 사용
한다.

삼인의 방즈하기 유왕유심흐여 칙 한 장 들쳐보며 붓시 먹물 못쳐 기억

즈 한 즈 쓰는 일 업시 날마다 풍악과 창기의 침혹하여 불분주야하고 -중략-
-심지어 낭안을 쓰더 곳쳐 고을톨 튀각을 민드니 저 기성년들은 거의 부즈
가 되고 관가는 거의 망케 되엿는지라『三說記』, 580쪽.

점잖은 사대부의 어투가 아니라 생활 일상어를 사용함으로써 <황주목
스계자기>는 사실성을 갖게 되는 데 더해 “이년 빗비 내려서라” “요악하
고 패심헌 년” “이년 너는 어이 세상의 삼겨 난다” 와 같은 비속어가 빈번
하게 나타남으로써 사회적 지위와 언어의 부조화로 인한 골계적 성격이
드러난다.

또한 아들들은 비속어가 섞인 관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제 대모관 식향의 와서 그져 도라가면 경성 친구들이라도 보삭의 으들
노 알지라 『三說記』, 578쪽.

턱일은 어이 썰니 니엇는지 소경 늬의 즈시오니잇가 뉘가 흐엿는고 『三說
記』, 582쪽.

너를 이즈면 네 으들이라 -중략- 너 이즐 네 아들 업다. 『三說記』, 586쪽.

구어체의 일상어는 아들들과 기생의 전횡이 심해지면서 “이 못삼긴 늬
들이” “발촉하고 헤키흔 늬” “저늬이..” 등으로 율공의 어조에도 스며들게
된다.

기대 정서에 반하는 일탈적인 언어와 권위의 전복에서 오는 골계성은
<황주목스계자기>의 표현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일탈과 반전을
통해 얻어지는 골계를 통해 『황주목스계자기』는 전형적인 양반과 관리들
의 이중적 성격에 대한 비소를 유도하고자 한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황주목스계자기>는 익숙한 서사 구조를 활용하고 보여주기를 통해 장면을 객관적으로 묘사하였으며 사설치레를 삽입함으로써 정서의 확충을 피하였고 골계적인 언어 표현으로 비소를 유도하는 스토리텔링 방식을 적용하고 있음을 보았다. 이와 같은 방식들은 원텍스트의 변용과정에서 원텍스트와는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원텍스트의 특징을 스토리텔링에 적용함으로써 효과적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또한 「황주목스계자기」의 이러한 스토리텔링 방식들은 개별적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는 특징을 가진다. 예를 들어, 회화화된 장면을 보여주기도 하고 유형 구조의 반복 과정에서 사설치레가 나타나기도 하며 사설치레는 장면을 보여주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볼 때 「황주목스계자기」의 스토리텔링 방식은 구조와 표현, 사설치레와 골계성이 교직되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스토리텔링 방식이 소설이라는 특정한 장르로의 지향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4. <황주목스계자기>의 소설사적 의의

방각본 소설은 개인적 취미보다는 상업적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생산과 시장이라는 경제 원리에 의해 지배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방각본 소설은 생산 단계부터 수요자의 흥미와 대중성이 반영되기 마련이다. 이처럼 방각본 소설의 생산에 문화의 재화적 가치 문제가 중요한 자질이 된다는 점에서 방각본 소설은 매체의 성향에 맞도록 기존의 작품을 새롭게 스토리텔링함으로써 상품화된 것이다. 판소리 창본과 방각본 그리고 세책본 등 향유 방식에 따라 같은 작품이라도 세부적인 구성이 다르다는 것은 이러한 경향을 잘 말해준다.

이때 기존의 작품을 재창작하는 방법으로서 패러디가 원텍스트를 스토리텔링하는 과정에서 기능한다. 패러디는 선행의 기성품을 계승·비판·재조합하기 위해 재기호화하는 의도적 모방인용이다. 이처럼 기존의 텍스트에 대한 의식적인 행위이고 작가는 자신의 세계관과 창작 의식을 반영하여 원텍스트를 패러디하기 때문에 원텍스트와 재해석된 텍스트를 비교함으로써 작가의식을 추론할 수 있다.

이처럼 텍스트를 감상하는 본질적인 차이를 고려하여 수용자에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하게 된다는 점으로 볼 때 <황주목스계자기>는 『笑囊』134화 <一方伯..>을 원텍스트로 하여 상품성을 가질 수 있도록 패러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패러디 과정에서 원텍스트와는 다른 텔링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소설로서의 특징을 가지게 되었다. <황주목스계자기>에 적용된 스토리텔링 방식은 원텍스트의 서사 구조를 골격으로 하여 대상에 대한 탐색과 주장을 곁들이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산 방식은 <황주목스계자기>의 소비방식을 동시에 표상하고 있다. 방각본에 요구되는 상품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황주목스계자기>의 형성 과정은 도시의 유흥과 유행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황주목스계자기>의 형성에 반영된 당시의 유행으로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문학 향유에 있어 장르간의 교섭을 들 수 있다. 앞 장에서 살펴 본대로 <황주목스계자기>의 스토리텔링 방법은 장면 보여주기, 사설치레의 활용, 골계적 성격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는 판소리의 장르 특질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판소리는 고소설에 비해 골계미를 가지며 장면 극대화와 상황적 정서의 추구, 상투구의 사용을 그 특징으로 한다²¹⁾는 점에서 그러하다.

21) 이정원, 「고소설과 판소리의 장르 특질과 텍스트 양상」, 고소설연구 11집, 60면 참조.

또한, 판소리가 사건의 연속을 서술한 부분과 한 장면의 정지된 상태를 묘사하는 부분으로 나뉘는 것, 서사구조에 맞다고 생각하는 소도구들을 변용하면서 전승²²⁾되었다는 것, 상황을 묘사하는 창은 연창자의 필요에 따라 잡가 등을 삽입²³⁾하기도 하였다는 점 등은 <황주목스계자기>의 스토리텔링 방식과 유사하다고 본다. 더욱이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판소리의 향수가 19세기 중반 양반들에게 있어 하나의 교양물로 정착²⁴⁾되었다는 정황으로 보아 <황주목스계자기>의 스토리텔링 과정은 이의 영향 아래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판소리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사설치레에 대한 미학적 표현 효과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되면서 때로는 유래를 같이 하는 유형화된 사설치레들이 장르를 초월하여 공존하기도 하고 그것을 연행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유사한 문맥에서 교섭되기도 하는 등 다채롭게 수용²⁵⁾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사설치레가 운문적 성격과 음악과의 관련을 통해 실현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황주목스계자기>라는 독서물 속에서 구현되었다는 데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사설치레가 가지는 연행 문학적 속성에 대한 독자들의 선이해(先理解)를 전제로 나타난 것이라고 본다. 유흥이 상업문화와 결합하면서 참신함보다는 익숙한 것을 선호하는 경향²⁶⁾ 속에서 사설치레의 다양한 실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서적 경험이 음악 혹은 연행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선이해를 통해 독서물로 구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2) 정병현, 『판소리문학론』, 1993, 새문사, 9면.

23) 정병현, 위의 책, 58면.

24) 정병현, 앞의 책, 39면.

25) 박영주, 앞의 논문, 51면. 참조

26) 박애경, 앞의 책, 44면.

이렇게 본다면 <황주목스계자괴>는 야담이 가진 서사 구조에 판소리의 구성 방식과 장르 특성을 적용하여 스토리텔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판소리가 도시 유흥으로 인기를 얻게 되자 이의 연행적 성격을 독서물에 반영하게 된 것인데 이로 인해 <황주목스계자괴>는 판소리가 가진 미적·구조적 특질도 함께 담아 낼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황주목스계자괴>는 향유 방식이 상이한 두 장르를 읽기 방식의 작품 속에 접목하고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

두 번째로는 인정물태(人情物態)를 표현하는 것이 도(道)나 치세(治世),性情(性情)의 도야(陶冶)를 담는 것보다 흥미롭고 중요해지는 18·19세기 문풍의 변화²⁷⁾를 들 수 있다. 사회적 소외 현상과 인물을 선호하고 개인의 내면세계와 시정 생활을 섬세하게 묘사하는 것을 지향하며 각 개인의 독특한 삶의 모습과 개성을 드러내는데 치중하는 소품문²⁸⁾은 이러한 변화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인간의 품성이 국가와 정치, 우주와 性命이라는 거대 담론이 아니라 일상성을 통해 드러난다는 <황주목스계자괴>의 설정은 조선 후기 문풍의 유행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묘사와 사설치레를 통해 나타나는 기물이나 관직 역시 이러한 일상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이와 함께 <황주목스계자괴>가 보여주는 성에 대한 관심과 골계적 성격은 소화집과 폐설집에 나타나는 육담 표현의 유행²⁹⁾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유행에 더해 조선 후기 시가와 판소리, 풍속화가 일정한 공통적

27) 강혜선, 「金鑣의 稗官小品文 연구」, 『한국 고전 소설과 서사문화』 上, 집문당, 1998. 365~367면 참조

28) 안대회, 「조선후기 소품문의 성행과 글쓰기의 변모」, 『한국한문학 연구』 28집, 2001, 103~104면 참조

29) 최혜진, 앞의 책, 49면 참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황주목스계자기>의 의의 규명에도 유효하다고 본다. 18·19세기 시가와 판소리 그리고 풍속화는 여항인의 양면적 속성이 작용함으로써 생산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장르들이 보여주는 세계관과 형식구조가 흡사하다. 삶의 의의를 일상에서 구한다는 실용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사실에 기반한 세밀한 묘사가 나타난다는 점, 해학과 풍자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 점³⁰⁾ 등이 그러하다.

이상의 논의로 볼 때 <황주목스계자기>는 19세기 문학의 역동성과 다양성이 단편 소설로 구현되었다는 점에서 소설사적 의미가 있다고 본다.

5. 결론

본 논문은 <황주목스계자기>가 기존 야담을 원텍스트로 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하여 개별 작품으로서 <황주목스계자기>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황주목스계자기>가 방각본 소설집에 수록될 수 있을 만큼 대중적인 작품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원텍스트의 변용을 중심으로 하는 형성 과정을 살펴보았다.

<황주목스계자기>는 18세기 중·후반 이후에 찬집된 한문 필사본 야담집『笑囊』 134화를 원텍스트로 하여 형성된 작품이다. 세 아들의 아버지가 아들들의 우열을 말하는 것, 우열의 기준을 기생을 대하는 태도에 둔 것 그리고 셋째 아들을 다른 아들보다 우위에 둔 것 등 <황주목스계자기>는『笑囊』 134화 <一方伯..>의 소재와 서사단락에 대응된다. 그리고 세 아들이 기생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그 아버지가 아들들의 미래를 예언

30) 김현주, 「18세기고전시가 판소리 풍속화의 상동성」, 『한국시가연구』 11집, 143~150면 참조.

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그러나 <一方伯..>에 비해 <황유목스계자괴>는 소설이라는 갈래적 특징으로 인해 인물 설정이나 구조 그리고 주제 등에 차이를 보인다. <황유목스계자괴>의 인물은 구체적이며 이러한 인물 설정이 서사진행 과정에서 구체화된다. 또한 공간이 가지는 특수한 정황을 환기한다는 특징과 함께 사건의 전후 관계가 구체적이다.

무엇보다 <황유목스계자괴>는 기생이라도 진정으로 대하는 사람이 큰 일을 하게 된다는 주제와 새로운 인간 가치의 긍정이라는, <一方伯..>에서는 구현되지 않았던 주제가 나타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당대 유행하던 관념과 시대상을 보여준다는 데에 소설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이와 같이 <一方伯..>을 원텍스트로 하여 생성된 <황유목스계자괴>는 야담과는 다른 텔링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방각본 소설로서의 면모를 지니게 된다고 본다. 문장 단위의 배치방식, 서술 시각 문체 성격 등으로 인해 동일한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서술하는가에 따라 작품의 개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황유목스계자괴>는 사랑과 이별에 대처하는 아들들의 상황이 병렬적으로 배치되면서 동일한 상황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스토리텔링 방식을 적용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아버지는 세 아들의 행위를 비교하고 셋째 아들이 기생에게 진정으로 대한다는 점을 긍정하면서 주제가 구현되고 있다. 첫째 아들을 통해 기생을 일회적인 성적 도구로만 파악하는 양반들의 일반적인 관행을, 둘째 아들을 통해 표리부동한 양반을 비판하는 것이다.

또한 <황유목스계자괴>는 등장 인물들의 언술이나 행동이 사건 정황에 비해 풍부하게 서술되어 있다. 장면을 보여주는 방법은 이처럼 행동을 자세하게 묘사하는 방법으로 나타난다. 운공의 시각이기는 하되 감정이 배제된 객관화된 서술로 이루어져 <황유목스계자괴>의 인물에 대한서술

은 객관적 입장에서 진행된다. <황주목스계자기>는 인물이 처한 상황과 그 장면을 보여주는 스토리텔링 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상황의 추이를 편집자의 시각으로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묘사의 방식으로 보여줌으로써 장면이 객관화되고 사실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황주목스계자기>는 유사한 문맥적 기능을 가진 어휘들을 열거하고 함으로써 사실치레를 활용하는 스토리텔링 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사실치레의 기능과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실치레의 대상이 기물뿐 아니라 인간의 현실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황주목스계자기>에서 사실은 일정한 상황이나 상태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황주목스계자기>의 사실치레는 일정한 공분모적 성격을 지닌 다양한 어휘들이 허풍과 과시, 이별이라는 구체적 상황 안에서 차례대로 쉼어짐으로써 하나의 언어 구조체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황주목스계자기>의 사실치레는 각 장면에서의 정서를 확충하고 해소하는 풀이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사실치레의 일반적 성격과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

논리적이고 규범적인 가치 인식에서 일탈된 양상을 보여줌으로써 <황주목스계자기>는 양반으로서의 가치규범에서 일탈하는 인물들을 회화화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기대 정서에 반하는 일탈적인 언어와 권위의 전복에서 오는 골계성은 <황주목스계자기>의 표현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일탈과 반전을 통해 언어지는 골계를 통해 <황주목스계자기>는 전형적인 양반과 관리들의 이중적 성격에 대한 비소를 유도하고자 한 것이다.

<황주목스계자기>는 익숙한 서사 구조를 활용하고 보여주기를 통해 장면을 객관적으로 묘사하였으며 사실치레를 삽입함으로써 정서의 확충을 꾀하였고 골계적인 언어 표현으로 비소를 유도하는 스토리텔링 방식

을 적용하고 있음을 보았다. 그런데 <황주목스계자괴>의 이러한 스토리텔링 방식들은 개별적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와 표현, 사설치레와 골계성이 교직되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텔링 방식이 소설이라는 특정한 장르로의 지향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황주목스계자괴>에 적용된 스토리텔링 방식은 원텍스트의 서사 구조를 골격으로 하여 대상에 대한 탐색과 주장을 곁들이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산 방식은 <황주목스계자괴>의 소비방식을 동시에 표상하고 있다. 방각본에 요구되는 상품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황주목스계자괴>의 형성 과정은 도시의 유흥과 유행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황주목스계자괴>는 야담이 가진 서사 구조에 판소리의 구성 방식과 장르 특성을 적용하여 스토리텔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판소리가 도시 유흥으로 인기를 얻게 되자 이의 연행적 성격을 독서물에 반영하게 된 것인데 이로 인해 <황주목스계자괴>는 판소리가 가진 미적·구조적 특질도 함께 담아 낼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황주목스계자괴>는 향유 방식이 상이한 두 장르를 읽기 방식의 작품 속에 접목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그리고 19세기 문학의 역동성과 다양성이 단편 소설로 구현되었다는 점에서 <황주목스계자괴>의 소설사적 의미가 있다.

참고문헌

- 『三說記』, 『韓國古典文學大系 第 13卷 短篇小說選』, 民衆書館, 1976.
강혜선, 「金鑪의 稗官小品文 연구」, 『한국 고전 소설과 서사문화』 上, 집문당, 1998.

- 김동주, 「삼설기에 나타난 삶의 인식」,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1989.
- 김준형, 「조선조 패설문학 연구」, 고대 박사학위논문, 2003.
- _____, 「패설에 그려진 기생」, 『한국학연구』 20, 2004 상반기.
- 김현룡, 「기녀설화변이 연구」, 『겨레어문학』 33집, 2004.
- 김현주, 「18세기고전시가 판소리 풍속화의 상동성」, 『한국시가연구』 11집, 2002.
- 박영주, 「판소리 ‘사설치레’ 연구」, 성균관대 박사논문, 1992.
- 박일용, 「『三說記』에 나타난 율문적 문체와 그 의미」, 김병국 외, 『장르교섭과 고전시가』, 월인, 1999.
- 심치열, 「스토리텔링 관점에서 본 고소설의 다양한 표출방식 -<채봉감별곡을 중심으로>-」, 고소설학회 84차 동계학술대회 발표문, 2009.2.
- 안대회, 「조선후기 소품문의 성행과 글쓰기의 변모」, 『한국한문학 연구』 28집, 2001.
- 윤주필, 「고소설과 설화문학의 관련성 연구의 제 문제점」, 『古小說研究』 11집, 2001.
- 이경숙, 「삼설기 연구」, 한양대 석사논문, 1986.
- 이영균, 「삼설기 연구」, 부산대 교육대학원, 1995.
- 이정원, 「고소설과 판소리의 장르 특질과 텍스트 양상」, 『古小說研究』 11집, 2001.
- 이주영, 「<삼설기>소재 작품의 구성 방식과 지향」, 『古小說研究』 제8집, 韓國古小說學會, 1999.
- 장덕순 외,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1984
- 전준이, 「『삼설기』체제와 유가담론」, 『泮橋語文研究』 14집, 泮橋語文研究會, 2002.
- 정병현, 『판소리문학론』, 새문사, 1993,
- 정성희, 『조선의 섹슈얼리티-조선의 욕망을 말하다』, 가람기획, 1998.
- 鄭愛俐, 「三說記 研究」, 이화여대 석사논문, 1987.
- 조광국, 『기녀담 기녀등장 소설 연구』, 월인, 2000.
- 최혜실 외, 『문화산업과 스토리텔링』, 다할미디어, 2007.
- 최혜진, 『판소리계 소설의 미학』, 역락, 2000.

ABSTRACT

The Study on the Formation Process of *Hwang-jyu-mok-sa-kye-ja-gui*

Shin, Hee-Kyung

This paper consider on the formation process of 'Hwang-jyu-mok-sa-kye-ja-gui' which originally based by yadam So-nang one hundred thirty four, but 'Hwang-jyu-mok-sa-kye-ja-gui' has different storytelling method apart from yadam it shows 'Hwang-jyu-mok-sa-kye-ja-gui's aspect of Bang-kak-bon.

'Hwang-jyu-mok-sa-kye-ja-gui' tell how sons are cope with parting repetitively and using the Sa-sul-chi-re to give characters comical aspect, these storytelling methods have crossed characteristics which showed intentionally because it aims to become popular novel from the very first time. These formation process also reflect city's entertainment and trends because it has to achieve merchantable quality of Bang-kak-bon. To put it shortly, 'Hwang-jyu-mok-sa-kye-ja-gui' have yadam's narration structure, Pan-so-ri's format, genre characteristics in its storytelling methods.

This storytelling methods reflected in 'Hwang-jyu-mok-sa-kye-ja-gui' have significant meaning in novel history since it show nineteenth century literature's dynamics and diversity in short story.

Key Words Hwang-jyu-mok-sa-kye-ja-gui, storytelling, So-nang, Pan-so-ri, Sam-sul-ki.

논문투고일 : 2011. 10. 15
심사완료일 : 2011. 11. 30
게재확정일 : 2011. 12. 05